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4, Vol. 19, No. 4, 433-446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최 윤 경
국립법무병원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이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부권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52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 성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작성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는 성 고정관념 척도, 가정폭력 피해경험 척도, 갈등 관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암묵적 성 고정관념은 Greenwald 등(1998)이 고안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e Test, IAT)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과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차이,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에 대해 성 고정관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정폭력경험과 암묵적 성 고정관념,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은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었다.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라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보였으나 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경험, 데이트폭력, 명시적 성 고정관념, 암묵적 성 고정관념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2년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Tel : 041-730-5414, Fax : 041-736-5765, E-mail : 1058@paran.com

우리는 이상적인 이성과 진정한 사랑을 하는 로맨틱한 데이트를 꿈꾼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른 성장배경에서 자라온 이성이 만났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그에 따른 해결 책략으로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랑싸움' 혹은 '거친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지면서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것이 생소하였다. 이에 몇몇 학자들(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은 이성과 사귀는 것이 서로 낭만을 나누고 달콤함을 추구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질투, 분노, 혼란 등의 정서적 표출을 하는 시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서양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는 1981년 Makepeace의 연구를 계기로 데이트 폭력의 실태, 원인, 영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6년부터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데이트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 실시 및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데이트 폭력문제의 심각성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중매체에서도 이를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데이트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과거 한국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 연구결과,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중에 한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2002;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서양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많이 탐구되어 온 반면, 국내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더욱이 서양 문화권과 다른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경험하는 데이트 폭력의 현황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다고 보인다.

데이트 폭력과 관계되는 변인 중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변인은 가정폭력 경험이다(유선영, 2000). 일반적으로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폭력 등 공격적인 행위는 관찰학습, 즉 모델링과정을 통해 획득된다(Bandura, 1973). 폭력에 대한 모델링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일차적 양육 현장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공격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목격과정에서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간접학습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성인이 된 후 데이트 관계에서 입장 차이나 욕구 차이에 의한 갈등이 발생할 때 그 해결 방법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김예정, 김득성, 1999).

실제로도 성장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등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후 폭력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용미, 김현옥, 2001;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2007; 장희숙, 2002), 피해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유선영, 2000).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비율이

더욱 높았다(서경현, 안귀여루, 2007). 결국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경우, 성장 후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인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장희숙, 2002). 따라서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 연구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데이트 폭력과 관계되는 또 다른 변인은 성 고정 관념이다. 성 고정관념이란, 한 사회 내에서 규정된 성역할을 성별에 따라 특성과 역할을 구분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성 고정관념이 짙은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성 고정관념은 남성은 공격적, 주도적인 반면 여성은 의존적, 피동적인 존재라고 믿는 태도이며,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경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학습되는데, 그 형성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 성 고정관념을 내면화하여 가부장적이고 성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을 형성하기 쉽다는 것이다(김은경, 엄애선, 2010).

현혜순(2005)은 이에 관련해 자녀의 성 고정관념이 남녀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으로 형성되어 과정을 가정폭력의 목격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자녀는 단순히 폭력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를 목격하면서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까지 학습하게 된다. 즉, 자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서 남성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인 반면에 여성은 힘이 없고 무력하며 폭력을 참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학습한다. 남성은 권력자이고 주체적인 존재인 반면 여성은 피해자이고 종속적인 존재인 것으로 성역할이 각인되는 것이다(현혜순, 2005).

Lichte와 McCloskey(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딸은 정상적인 남성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는데, 특히 자기중심적인 남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남성의 우월성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다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손승아, 2004; 신성자, 1997; Muehlenhard & Linton, 1987) 또한 남녀관계에서 남자는 주도적,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강조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본다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자녀는 가부장적인 성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훗날 데이트 관계의 상대방에게 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이 세워지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성 고정관념이 잔존해있기 때문에(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성 고정관념이 한국인의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데 더욱 타당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성교제 중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데이트 폭력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방책의 일원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풍토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따르는 성 고정관

념에 대한 태도 연구가 명시적 측면을 반영한 결과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요인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명시적 태도뿐 아니라 암묵적 태도를 측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집단은 명시적 성 고정관념보다 암묵적 성 고정관념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데이트 폭력 경험에 관련하여 가정폭력경험을 하는 것이 암묵적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매개역할을 해서 데이트 폭력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중부지방에 위치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수집된 IAT 자료 중 오류 반응의 비율이 15% 이상인 3명, 통계분석 중 가외치(outlier) 검증에 의한 6명을 제외한 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학교 내의 중앙로, 각 건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실험 참여 광고를 보고 참여 의사를 밝힌 연애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모집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만19세~24세까지였으며, 평균 나이는 만20.9세(SD=1.36)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38.5%(2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학년 25.0%(13명), 4학년 23.1%(12명), 1학년 13.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상황을 보면 자취가 46.2%(2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거주 32.7%(17명), 기숙사 거주 21.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 횟수는 한 번이 5.8%(3명), 두 번이 21.2%(11명), 세 번이 25.0%(13명), 네 번 이상이 48.1%(25명)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을 살펴보면, 경험이 없는 경우 42.3%(22명),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57.7%(30명)로 나타났다.

도구

가정폭력 피해경험 및 가정폭력 목격경험

유선영(2000)이 Straus(1971)의 CTS(Conflict Tactic Scale), Shephard & Campbell(1992)의 ABI (Abusive Behavior Inventory)를 일부 선택하여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유선영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피해 경험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가해 파트너의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 행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 (1996)의 갈등관리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 CTS-2)를 김정란(1999)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갈등 책략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란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명시적 성 고정관념

김동일(1993)이 작성한 것을 박유정(2000)이 신뢰도 계수를 높여 재구성한 3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개의 하위 척도(직업 및 외형적 특

성, 사회적 성역할, 사회 심리적 특성, 가정적 성역할, 지적특성)로 구성되어 있다. 박유정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4이다.

암묵적 성 고정관념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IAT는 특정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의 연합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대상에 대한 암묵적 태도는 대상과 수차례 '연합'된 좋은 (또는 나쁜) 기억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두 개의 표적범주와 이와 다른 두 개의 대조범주 각각이 서로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측정하며, 이 때 범주가 연합되는 반응시간과 정확성을 측정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 피험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자극 단어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에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배분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본 실험에서의 IAT 제작과정에서 시간측정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Millisecond software사의 http://www.millisecond.com에서 inquisit.exe(Millisecond Software, 2004)를 활용하였다. 표적군은 '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이며 대조군은 '남성상징단어'와 '여성상징단어'이다. 표적군과 대조군에 포함시킬 단어들을 선별하기 위해 최현용(2001)의 연구에서 대표성을 확보한 여자관련이름, 남자관련이름 총 40개, 김은영(1991), 김혜래(2003), 박유정(2000), 이선자(1996), 최현용(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 고정관념 척도 및 여성·남성상징단어 155단어를 표집 하였다. 이후 30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각 단어들에 대한 대표성 수준을 조사하였다. 표적군인 이름단어는 '매우 남성적'이면 1점으로 평가하고, '매우 여성적'이면 5점으로 평가하도록 이루어졌다. 대조군인 상징 단어는 각 단어가 남성과 여성 각각에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으로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매우 그렇다'면 7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여성과 남성 관련 단어들은 각각의 성별에서 대표성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선정되었고, 점수가 같을 시 반대 성별의 대표성 점수에서 더 낮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이름단어는 점수가 낮을수록 남자관련이름으로 선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여자관련이름으로 선정되었다. 각 범주별 사용된 단어 예시는 아래와 같다(표 1 참조).

각각의 카테고리는 10가지의 자극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 구성 및 절차는 Greenwald 등(1998)이 제안한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는 모두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표 1. 암묵적 연합검사 구성 예

		IAT
표적범주	남자이름	동훈, 태환, 준호, 진석, 동수, 영석, 광호, 명석, 완석, 일호
	여자이름	미라, 민희, 민지, 숙희, 민정, 은미, 선희, 선화, 은정, 은아
대조범주	남성상징단어	힘있는, 바깥일하는, 강인한, 대통령, 돈을버는, 트럭운전수, 강하다, 운동하는, 늑대같은, 박력있다
	여성상징단어	아름다움추구, 간호사, 외모신경쓰는, 살림하는, 섬세하다, 어여쁜, 집사람, 안사람, 풍부한 감수성, 사랑스러운

데, 첫 번째 단계는 표적군 변별 단계로서 남자와 여자 관련 이름을 구분하는 연습시행을 한다. '남자이름'이 제시되면 키보드에서 'Z'키를 누르고, '여자이름'이 나오면 '?'키의 '/'를 눌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조군 변별 단계로 남성상징단어와 여성상징단어를 구분하는 연습시행을 한다. 즉 '남성상징단어'가 나오면 키보드에서 'Z'키를 누르고, 우측상단에 '여성상징단어'가 나오면 키보드에서 '/'키를 누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남자와 여자 이름,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조합된 상응과제를 구분하는 변별 연습시행으로, '남자이름' 혹은 '남성관련단어'가 나오면 'Z'키를, '여자이름' 혹은 '여성관련단어'가 나오면 '/'키를 누른다.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와 동일하며 실제 변별 검사시행을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와 실시방식은 동일하나 남성과 여성상징단어의 위치가 달라져 '여성상징단어'가 나오면 'Z'키를 누르고, '남성상징단어'가 나오면 '/'키를 누르게 한다. 여섯,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남자이름' 혹은 '여성상징단어'가 나올 시에 'Z'키를 '여자이름' 혹은 '남성상징단어'가 나오면 '/'키를 누른다. 참여자 중 홀수 번째 참여자는 '남자이름'과 '남성상징단어', '여자이름'과 '여성상징단어'가 같은 키로 누르는 시행(상응과제)을 3, 4 단계에서 하고, '남자이름'과 '여성상징단어', '여자이름'과 '남성상징단어'가 같은 키로 누르는 시행(비상응 과제)를 6, 7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짝수 번째 참여자는 그 반대로 실시하였다. 즉 네 사람이 연속해서 실행하였을 때 첫 번째 참여자는 상응과제 우선, 두 번째 참여자는 비상응 과제 우선, 세 번째 참여자는 상응과제 우선, 네 번째 참여자는 비상응 과제 우선으로 시행한다(표 2 참조).

효과 분석은 두 개의 범주가 조합된 변별과제에서의 수행속도 차이로 계산되는데, 비상응과제의 반응시간에서 상응과제의 반응시간을 뺀 차이 값을 의미한다. 이 차이의 점수가 클수록 표적군(예, 남자이름)과 대조군(예, 남성상징단어)의 연합이 잘 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한 분석은 총 7단계, 120시행 중 검사시행인 4단계와 7단계의 반응시간으로 분석되었다.

표 2. IAT 절차에 대한 도식(홀수 피험자: 상응과제 먼저 제시된 경우)

블록	IAT 과제	
	Z키(왼손)	/키(오른손)
1(연습)	남자이름	여자이름
2(연습)	남성상징단어	여성상징단어
3(연습)	남자이름+남성상징단어	여자이름+여성상징단어
4(검사)	남자이름+남성상징단어	여자이름+여성상징단어
5(연습)	여성상징단어	남성상징단어
6(연습)	남자이름+여성상징단어	여자이름+남성상징단어
7(검사)	남자이름+여성상징단어	여자이름+남성상징단어

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소집단(1명~5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앞으로 진행될 실험이 성 고정관념에 따른 데이트 유형방식에 관한 실험이라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실험이 끝난 뒤 하기로 하였다. 이 후 참여자들의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정해진 자리의 컴퓨터에 앉도록 지시하였다. 실험은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였고, 반응시간의 미세한 차이도 중요하게 처리되므로 실험 중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도록 지시하였다. 실험의 진행순서는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문항을 먼저 평정할 경우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개념이 쉽게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IAT를 먼저 실시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작하기 전 실험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자극 단어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분류하는 작업임을 일러준 다음 모니터에 나오는 지시문에 따라 실험이 이루어졌다. 참여자가 일련의 검사를 모두 마치고 나오면,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이 끝난 뒤, 암묵적 연합검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 후 실험을 마무리 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유무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넷째, 가정폭력이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단계를 서영석(2010)이 정리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서영석(2010)이 정리하여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1) 매개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으로 준거변인을 회귀 추정(A)한다.

(2)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으로 매개변인을 회귀 추정(B)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는 예측변인과 매개변인 모두를 가지고 준거변인을 회귀 추정한다.

각 단계의 경로가 유의미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로(1)에서의 효과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이 때 경로(1)보다 효과가 줄어들었지만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매개변인만이 종속변인을 설명할 때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 과

가정폭력경험과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의 상관관계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가정폭력경험, 암묵적 성 고정관념과 명시적 성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폭력경험은 암묵적 성 고정관념(r=.324, p<.05)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r=.283, p<.05)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 차이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 점수의 평균은 암묵적 성 고정관념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23, p<.05). 암묵적 성 고정관념(IAT 반응시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참가자(n=22)의 경우 M=299.81ms(SD=131.01),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참가자(n=30)의 경우 M=389.84ms(SD=133.32)으로 약 90ms의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명시적 측정방법보다 암묵적 측정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시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 피해경험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β=.283, p<05). 2단계인 가정폭력경험은 명시적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 피해경험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β=.283, p<05). 2단계에서도 가정폭력경험은 매개변인인 암묵적 성 고정관념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으나(β=.324, p<.05), 3단계에서는

표 3. 가정폭력경험과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상관분석

	1	2	3	4
1. 가정폭력경험	-			
2. 암묵적 성 고정관념	.324*	-		
3. 명시적 성 고정관념	.243	.037	-	
4.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283*	.300*	.116	-

*p<.05

표 4.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	β	R^2	ΔR^2	t	F
1	데이트 피해경험	가정폭력경험	2.624	.283	.080	-	2.087*	4.356*
2	암묵적 성 고정관념	가정폭력경험	90.028	.324	.105	-	2.423*	5.873*
3	데이트 피해경험	암묵적 성 고정관념	.010	.233	.090	-	2.223*	4.943*
	데이트 피해경험	가정폭력경험	1.925	.208	.129	.039	1.473	3.615

*p<.05

가정폭력경험과 암묵적 성 고정관념을 함께 투입한 결과, 가정폭력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암묵적 성 고정관념은 가정폭력경험보다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표 4 참조).

논 의

연구 결과와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경험과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경험은 암묵적 성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동시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는 유선영(2000)의 연구결과, 여성의 성 고정관념은 데이트 폭력 피해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서경현 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정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높아지고 성인이 된 후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많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라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명시적 성 고정관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암묵적 성 고정관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자녀는 단순히 폭력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를 목격하면서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까지 학습하게 된다는 현혜순(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가정폭력경험에 따른 성 고정관념에 대한 차이를 본 연구들은 명시적 태도만을 측정하였고 암묵적 태도를 본 연구는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정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에서의 차이를 뒷받침할 만한 선행연구의 부족과 본 연구의 적은 실험참가자 수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수를 모집하여 가정폭력경험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폭

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암묵적 성 고정관념은 가정폭력경험보다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서경현 등(2010), Lichte & McCloskey(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희박하며,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결과는 명시적 성 고정관념만을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암묵적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성인기 이전에 경험한 가정폭력경험이 단기간의 영향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이 된 이 후의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성 고정관념 또한 데이트 폭력 피해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가정폭력경험과 성 고정관념은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 두 요인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의 관계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피해 전승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를 축적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이후 성인기의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가정폭력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학대하거나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자녀에게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모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는 보다 교육적, 치료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명시적 측정도구와 함께 암묵적 측정도구를 함께 사용하였다. 성 고정관념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요구하는 범주이므로 명시적 측정도구만으로 태도를 측정하는 경우, 왜곡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명시적 측정도구와 더불어 성 고정관념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암묵적 태도까지도 측정함으로써 성 고정관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태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성 고정관념에 대한 실제적인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는 작업은 성 고정관념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태도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때 각각의 상황에 알맞은 개입방법을 통해 성 고정관념에 대한 행동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은 가정폭력경험보다 성 고정관념의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교제나 혼전 단계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가부장적인 성 역할 태도에 대한 점검이나 성 고정관념에 대해 재조정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 및 잠재적 위험 집단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중부지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여대생의 경향이라고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실험 참가자 모집하여 개인차의 영향을 보다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성 고정관념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여부 자체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뿐 아니라 이성교제 중이거나 혼전 단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남성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더욱 우세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 문제나 그 양상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데이트 폭력 가해자인 여자나 피해자인 남자의 비율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매개 변인은 명시적·암묵적 성 고정관념이었지만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 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매개 변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경험보다 성 고정관념 형성의 원인을 가정폭력경험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성 고정관념과 데이트 폭력 피해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 213-239.

김예정, 김득성 (1999). 데이팅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87-211.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Ⅰ):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Ⅱ):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3), 187-202.

김용미, 김현옥 (2000). 고교생의 이성교제 중 신체적, 심리적 폭력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183-194.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김은영 (1991).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재엽 (2002). **한국 부부의 의사소통과 가정폭력**. 성곡논집 제33권, 성곡학술문화재단.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

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호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박유정 (2000).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기의식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 2, 75-98.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 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77-95.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353-368.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손승아 (2004). 대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적 건강교육: 데이트 성폭력을 중심으로. 대한여성건강학회.

신성자 (1997). 남자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2, 181-211.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 폭력 피해와 이성교제 폭력 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선자 (1996).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 고찰과 창문이론 명명하기.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창간호, 1, 29-42.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5(2), 147-160.

장희숙 (2002).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 131-155.

현혜순 (2005). 아내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 탐색: 여성주의 인지행동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NJ: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Carlson, B. E. (1987). Dating violence: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8(1), 16-23.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 Christopher, S. (1983). Ra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3), 467-482.

Kaura, S. A., & Lohman, B. J. (2007).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ental health problems, and acceptability of violenc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367-381.

Lichte,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 344-357.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Marshall, A. D., Jones, D. E., & Feinberg, M. E. (2011). Enduring vulnerabilities, relationship attributions, and couple conflict: An integrative model of the occurrence and frequenc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 709.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86-196.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9.

Peled, E. (1997). Intervention with children of battered women: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Child abuse and Neglect*.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D. (1996). The revu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Ⅱ).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1차원고접수 : 2014. 10. 24.
심사통과접수 : 2014. 12. 24.
최종원고접수 : 2014. 12. 26.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4, Vol. 19, No. 4, 433-446

The Effects of College Women's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on Dating Violence Exposure: Mediated Effect of Explicit and Implicit Gender Stereotypes

Yoonkyoung Choi
National Forensic Hospital

Wonyoung Song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will provide the correlation of dating violence with: family violence, implicit and explicit gender stereotypes, and define mediated effect on each process related. The participants were 52 college students who had the experience of dating relationship.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CTS(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 ABI(Abusive Behavior Inventory), Explicit gender stereotype. Implicit gender stereotype that has become very popular in psychology recently is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t-test,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mily violence and implicit gender stereotype, dating violence. Family violence victim group between family violence non victim group suggests that difference significantly by IAT. Implicit gender stereotype had full influence on dating violence.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amily violence, Gender stereotype, Dating violence, IAT